

영암 태양광발전소 ‘준공’ 없이 송전사업 강행

무허가 모듈 설치 후 수익금 쟁거
한전 “전기사업법...적법한 절차”
군청, 1년 넘게 별다른 대응 없어

영암지역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준공 허가도 무시하고, 송전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사들인 한국전력 영암지사측은 태양광시설의 안전검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 허가없이 송전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할 감독기관인 영암군은 국

토법을 근거로 허가 취소 및 필요한 조치를 1년 넘게 미루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불법 행위’를 목인 및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0일 영암군과 한전 영암지사측에 따르면 모 민간사업자는 지난 2017년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 2019년부터 송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 민간사업자의 태양광 송전사업은 2,000평 규모에 약 100kW 4개소가 설치돼 한달 평균 1개소당 250만원씩 총 4개소에서 1,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는 태양광모듈을 통해 얻은 전력을 한전 영암지사측에 매매하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이곳 송전사업 행위는 2017년 최초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후 변경 허가만 3차례 연장 신청한 뒤, 정작 준공검사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는 준공검사 후 허가가 떨어진 뒤 사업행위가 가능하지만, 이곳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송전사업을 강행했다.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2년여 동안 준공도 없이 무허가로 태양광모듈 설치 후, 송전사업을 통해 수익원을 챙긴 셈이다. 특히, 한전 영암지사는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무허가 발전시설에서 수익원을 지급하고, 전기를 사들인 꼴이

밖에 없다”며 “준공검사 등 구체적 법적조항도 전무해 절차에 따른 합법적 송전사업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영암군은 상반된 입장이다. 개발행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규정짓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영암군의 이런 의지는 허투루에 그치고 있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채지리 일대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변경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이 바로 영암군이다”며 “군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송전사업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도록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영암=최복성 기자

신안, 참달팽이 방사

신안군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과 공동으로 최근 국립생태원 연구시설에서 인공 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달팽이 20마리를 홍도 원서식지에서 방사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홍도 참달팽이는 개체밀도가 가장 높은 주요 서식처에서도 약 5마리/100㎡ 정도만 발견될 정도로 개체군의 크기가 매우 작다. 이번 참달팽이 방사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 까지 홍도에서 열리는 섬 원주리 축제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참달팽이 방사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다”며 “참달팽이 방사를 계기로 교육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서식지 보호 유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8년 홍도에서



신안군은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최근 국립생태원 연구시설에서 인공 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달팽이 20마리를 홍도 원서식지에 방사했다. /신안군 제공

참달팽이 5개체를 도입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개체수는 총 65마리로 늘어난 가운데 인공증식하는데 성공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섬 관광 ‘공영버스 자유 이용권’ 발행

신안, 성인 기준 5천원 판매

신안군이 ‘공영버스 자유 이용권’을 발행해 관광객의 교통 편의 도모에 나섰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지역을 찾는 외부 방문객은 공영버스 자유이용권(1일권, 2일권, 3일권)을 구매해 장소

와 상관없이 공영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해 섬 관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원하는 타입의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면, 무제한으로 정해진 기간 자유롭게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입가격은 1일 기준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초등학생 2,000원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나주 전국생활체육동호인 볼링대회 성료

전국 17개 시도 800명 기량 겨뤘

나주시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 관내 볼링경기장인 볼링300, ABC볼링장에서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볼링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 생활체육동호인 2만여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 축제다. 2020년과 2021년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열리지 않았고 올해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대축전은 개최지 없이 총 43개(정식40

·시범3) 종목별로 전국 각지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나주시는 스포츠 메카도시 이미지 제고와 혁신도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남·나주 볼링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볼링대회를 유치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인 이번 볼링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800여명의 생활체육 선수들이 나주로 모여 기량을 겨뤘다. 정식 대한볼링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천년고도, 에너지산업의 중

심지 나주에서 볼링대회가 개최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나주시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9일 대회 경기장을 찾아 참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윤 시장은 “볼링은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생활스포츠로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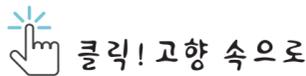


담양군 드림스타트가 최근 드림스타트 가정 30명을 대상으로 봉산면 담길 떡카페에서 쌀엿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 드림스타트,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드림스타트 가정 30명을 대상으로 창평면 감순임 슬로우푸드, 봉산면 담길 떡카페에서 쌀엿 만들기, 천연재료를 이용한 삼색 인절미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지역 농

산물과 천연 재료를 이용한 요리만들기 참여를 통해 쌀의 다양한 모양, 색깔 변신을 이용한 흥미 유발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체험에 참여한 한 아동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하는 체험활동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



그린장성21추진협, 폭염취약 주민 지원

장성군 사회단체인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의장 임경택)가 최근 폭염취약 주민들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6명이 포함된 ‘폭염 대응 지원단’이 활동의 주축이 됐다. 협의회는 노약자 등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 40곳을 선정해 쿨매트, 이불, 부채,

생수, 간편족 등을 지원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도 안내했다. 임경택 협의회 의장은 “이번 폭염취약 주민 지원은 기후변화 적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목포해경, 휴가철 대비 치안현장 점검

목포해양경찰서가 여름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해수욕장 및 수상레저 사업장 등을 방문하며 치안현장 점검에 나섰다. 1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종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주요 해수욕장과 수상레저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서장은 이날 신안군

임지도 대광해수욕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레미, 짙뽕해수욕장과 조금나루 해변을 차례로 방문하며 여름철 연안사고 대비해 인명구조 장비 및 안전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종욱 서장은 “행락객이 몰리는 치안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신안 임자면 지사협, 복지 역량강화 회의

신안군 임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타 지역 협의체 우수 특화사업 사례를 시청하고 상반기 주요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하반기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사업에 대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한 하반기 특화사업으로 ▲독거노인 400세대 위한 여름 보양식 나눔 ▲사랑의 밑반찬 나눔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의 이웃돌봄 사업 등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한편, 특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임자사랑 희망나눔’ 모금사업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신안=이주열 기자